

-아/어 두다

~해 두다 — 해 놓고 그 상태를 유지함

다음과 거의 같습니다: -아/어 놓다 차이는 그 결과를 누군가 필요로 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그대로 둘 것으로 예상하느냐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ㅣ 또는 ㅜ	-아 두다	사다 → 사 두다
그 밖의 모음	-어 두다	적다 → 적어 두다
하다 동사	해 두다	준비해 두다
구어 축약	-아/어 뒀다	사 뒀어요
타동사만	목적어 필요	표를 사 뒀어요
유의어	-아/어 놓다	사 놓았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: -아요/어요 사 두다, 적어 두다, 해 두다. 과거형은 구어에서 뒀어요로 줄어듭니다.

놓다와 마찬가지로 타동사에 쓰며, 의도적으로 결과를 그 자리에 남겨 둡니다. 차이는 기간입니다. 두다는 치워 두고 보관한다는 뜻이고, 놓다는 곧 쓸 수 있게 준비해 둔다는 쪽에 가깝습니다.

실제로는 겹치는 부분이 넓어 대부분의 화자가 둘을 바꿔 씁니다. 두다가 확실히 더 잘 어울리는 경우는 보관과 관련될 때입니다: 비밀번호를 적어 뒀어요, 고기를 냉동실에 얼려 뒀어요.

두다는 단독으로 ‘놓다, 두다(배치하다)’라는 뜻이며, 무언가를 따로 챙겨 둔다는 보조 동사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.

■ 예문

- 1 비밀번호를 수첩에 적어 뒀어요.
- 2 고기를 냉동실에 얼려 뒀어요.
- 3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사 뒀어요.
- 4 중요한 서류는 여기에 보관해 두세요.
- 5 저녁 재료를 미리 손질해 뒀어요.
- 6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.

■ 비교

-아/어 놓다
놓다는 곧 있을 일에 대비하고, 두다는 한동안 보관합니다. 대부분은 어느 쪽이든 괜찮으며, 규칙보다는 느낌의 문제입니다.
문을 열어 놓았어요. (환기하려고 지금 열어 둬) / 표를 사 뒀어요. (사서 보관함)

-아/어 있다
-아/어 있다는 행위자 없이 상태만 전하고, 두다는 그렇게 해 둔 사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.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입니다.
불이 켜져 있어요. (불이 켜진 상태) / 불을 켜 뒀어요. (내가 켜 두었다)

두다 단독
일반 동사로서는 ‘놓다, 두다’라는 뜻입니다. 보조 동사의 의미는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.
가방을 여기에 두세요. (가방을 여기 놓으세요) / 적어 두세요. (적어서 보관하세요)

■ 주의

- ✗ 중요한 서류는 보관하어 두세요.
○ 중요한 서류는 보관해 두세요.
하다는 놓다, 보다 앞서서처럼 두다 앞에서도 해가 됩니다.
- ✗ 불이 켜 뒀어요.
○ 불을 켜 뒀어요.
이 구문에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. 상태만 나타낼 때는 불이 켜져 있어요를 쓰세요.
- ✗ 어제 친구를 만나 뒀어요.
○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.
만나다의 보관해 둘 결과를 남기지 않습니다. 두다에는 나중을 위해 간직할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합니다.